

# 부산 기장군 ‘안데르센 동화마을’ 조성 박차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120번지 일원에 들어설 안데르센 동화마을은 안데르센 동화를 모티브로 한 숲·건강 체험 공간이다. 기장군은 안데르센 동화마을이 있는 덴마크 오덴세의 향기가 그대로 기장군에 전해질 수 있도록 테마단지를 꾸미고, 가족 단위의 교육·체험 학습과 지역 주민들의 힐링·문화 공간이 되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안데르센 동화는 어린이를 비롯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인 만큼, 이 마을은 기장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휴식과 여유를 즐기고, 상상 속 동화를 체험하는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기장군은 지난 2019년 덴마크 오덴세 안데르센 박물관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해 지적 재산권을 확보한 뒤에 안데르센 동화를 테마로 한 테마 숲을 먼저 조성했다.

62만5천145㎡(약 19만 평) 부지에 안데르센 동화 속 공간을 재현한 테마길, 포토존이 있는 동화의 숲, 미운 오리 새끼를 콘셉트로 한 동화의 호수, 순환산책로를 구성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기며 상상 속의 동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장군은 또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하려고 준비 중이

다. 테마 숲 내 동화의 호수에 있는 수증정원 공연장을 내실화해 어린이 및 가족 단위 연극·영화 공연, 마술, 버스킹 등 다양한 이벤트 콘텐츠를 기획해 운영할 계획이다.

덴마크에 있는 안데르센 동상을 테마 숲 안에 똑같이 건립해 ‘제2의 덴마크 안데르센 동화마을’의 느낌을 생생하게 연출할 예정이다. 기장군은 방문객의 만족도와 편의를 높이고자 기존의 테마 숲 정비도 지속하기로 했다. 산책로 유휴공간을 활용해 진달래꽃길, 흔들그네 의자, 쉼터 등을 충분히 조성하고, CCTV와 조명시설 등



안전 시설물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테마 숲을 찾는 이용객들이 365일 24시간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기장군은 동화마을과 부근에 먼저 건립한 안데르센 극장의 공연도 재개했다. 서울 어린이문화원, 광주 아시아 문화의 전당 어린이 문화관에 이어 국내 세 번째 아동·청소년 전문 극장으로 2015년 11월 개관한 안데르센 극장은 그간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우고 사회성을 높이는 문화 교육의 장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해 7월 공연을 중단했다가 1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앞서 안데르센 극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부터 70여 회가 넘는 공연을 진행하고 1만4천여 명이 관람해 이용자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했지만, 대면 공연이 중단되자 지난해 12월 온라인 공연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리며 공연 중단의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다.

기장군은 안데르센 극장과 테마 숲에 이어, 안데르센 동화마을까지 완성되면 기장군 명소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안데르센을 테마로 한 국내 유일 종합 관광지로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기성세대에게는 삶의 여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힐링 체험 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데르센 동화마을이 완공되면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진



1 안데르센 동화마을 테마 숲 2 테마 숲 산책로 3 안데르센 동화 속의 도자기 인형 4 안데르센 극장 5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를 들으며 동화 삼매경에 빠진 어린이들

중인 부산촬영소와 더불어 기장도에관광힐링촌 활성화를 위한 양대 축을 이뤄 다양한 지역 연계형 일자리 발굴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해 기장도에관광힐링촌을 찾는 방문객에게 소개하고, 부지 내 아름다운 자연 공간인 숲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해 어린이와 어른을 아우르는 친환경 힐링 체험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안데르센 동화마을을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



# 상상 그 이상의 여행지, 바로 **기장**입니다.

부산 도심 속에서 만나지 못한 특별한 순간을  
빛과 물, 꿈의 도시 기장에서 꿈꿔보세요.

